

#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의 민속문화

## 황 경 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 차 례

#### I. 머리말

#### II. 의식주

1. 의복과 장식
2. 식생활
3. 주거생활

#### III. 일생의례

1. 출생의례
2. 성년식과 혼례
3. 장례

#### IV. 세시풍속

#### V. 신앙생활

#### VI. 구비문학

## I. 머리말

현 부산광역시의 연혁을 보면, 삼한시대에는 동래<sup>1)</sup>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방은 변한 12국 가운데 독로국(勿辰瀆盧國)의 영지(領地)였는데, 기원(紀元) 1세기 초를 전후로 이 지방에는 황령산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부족국가인 거칠산국(居漆山國)과 상산(上山=菴山)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부족국가인 장산국(菴山國)이 있었으며, 기장은 갑화량곡(甲火良谷)이라 하여 거칠산국에 속해 있었던 것이라 추정된다.<sup>2)</sup> 그 뒤 신라의 파사(婆娑)·지마(祗摩)니사금시대(59-133)에 이르러 신라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인하여 이 지방이 신라에 복속되었다<sup>3)</sup>고는 하나, 북천동 고분군의 유적(토광목곽묘를 비롯한 견혈식 석실, 석곽묘 등의 다양한 분묘와 토기류, 철제 마구류, 갑주류 등의 출토품)을 보아 5세기 말까지는 가야 및 신라와 대등하고도 강력한 수장(首長)의 통치 하에 놓여 있었던 지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지방은 가야와 지연적 관계상 5세기까지는 가야문화권에 속해 있어 변한→가야로 잇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신라의 문화가 수용되기 시작하여 신라 말기에는 가야문화와 신라문화가 혼합된 민속문화를 양성(釀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민속문화란 기원적으로 개인적인 산물이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인<sup>4)</sup>들에 의해 널리 수용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의 과정을

- 
- 1) ‘東萊’라는 명칭이 생기기 전의 이 지방은 ‘菴山·萊山·居漆山·蓬萊·蓬山’ 등으로 불려졌다.
  - 2) 《삼국사기》잡지 지리1에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2 東平縣 本大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라 하여 동평과 기장을 동래군의 영현으로 한 것은 동평과 기장이 거칠산국 시대에 그 영지였을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3) 정중환, 《가라사연구》, 해안, 2000, P.316.
  - 4) 이 글에서 민속문화의 전승주체를 ‘민중’이라 하지 않고 ‘평인’이라 한 것은 《삼국사기》잡지 색목·거기·기용·옥사조에 최하계층의 사람들을 ‘평인’ 또는 ‘백성’이라 지칭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두 용어 중 ‘평인’을 택하여 쓴 것이다.

거처은 집단의 문화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속문화는 이 지방의 삼국시대 내지 통일신라시대의 평인들의 문화이다.

## II. 의식주

### 1. 의복과 장식

가야시대와 신라시대에 이 지방에 거주한 평인들이 어떤 직물로 만든 어떤 형태의 의복을 입었으며, 그들의 몸치장은 어떠한가, 그들이 타는 말에 대한 치장과 용구는 어떠한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고기록에 산견되는 자료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

삼한시대나 가야시대에는 이 지방에 뽕나무와 삼이 많아 당시 이 지방의 평인들은 누에치기에 밝았고 겹포와 삼베를 생산했다고 하였으니,<sup>5)</sup> 직조물로써는 비단과 삼베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비단이나 삼베로 옷을 해 입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계급 분화가 심하지 않은 시기인 만큼 평인들은 비단이나 삼베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옷 색깔은 염색하지 않은 상태의 비단이나 삼베로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소복(素服)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 뒤, 이 지방이 신라에 통합되고 그 문화권에 들자, 이 지방 평인들의 복식도 신라의 복식제도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당서》신라조에 “남자는 갈고(褐袴=짧은 베로 만든 바지)를 입었고, 여자는 긴 유(襦=속옷)를 입었다. 여자들은 분을 바르거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모두 치렁치렁한 머리를 틀어 올려 구슬과 비단으로 꾸몄고, 남자들은 머리를 깎고 검은 두건을

---

5) 曉蠶桑 作縑布.(《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전), 土地肥美 宜植五穀 多桑麻 作縑布.(《양서》 신라조)

썼다.”6)고 하였으며, 《수서(隋書)》동이전 신라조와 《북사(北史)》신라전에도 “옷은 흰빛을 숭상하고 부인들은 머리를 땡아 뒤로 감았으며, 거기에 비단 오라기와 구슬로 장식을 하였다.”7)라 하였으니, 남녀는 다 같이 소박한 흰 옷 차림을 했고, 여자들은 화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머리 장식을 좋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흥덕왕 9년(834)에 복식제도에 대한 엄한 교지와 아울러 이 교지를 범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였으니, 그에 따라 평인들의 복식에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잡지 색복(色服)조에 보면 “평인(平人)은 복두(幞頭)는 다만 비단과 베를 쓰고, 겹옷과 바지는 다만 베를 쓰며, 속옷은 비단과 베를 쓴다. 띠는 다만 구리와 쇠를 쓰고, 가죽신(靴)은 검은 사슴의 주름진 무늬의 자색 가죽을 금하며, 가죽신의 띠(靴帶)는 쇠와 구리만을 쓰고, 신(履)은 삼(麻)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베는 12새(升) 이하를 쓴다. 평인 여자는 겹옷은 다만 면주(綿紬)와 베를 쓰고, 속옷은 다만 김(紵=거친 명주)·명주·면주·베를 쓰며, 바지는 김 이하의 것을 쓰고, 걸치마는 명주 이하의 것을 쓴다. 옷고름은 다만 능(綾) 이하의 것을 쓰고, 띠는 다만 능·명주 이하의 것을 쓴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것을 쓰고, 버선은 김·면주(綿紬) 이하의 것을 쓴다. 빗은 흰 어금니와 빨 이하의 것을 쓰고, 비녀는 유석(鋤石) 이하의 것을 쓰며, 베는 15새 이하의 것을 쓰고, 색깔은 자황(赭黃)·자자분(紫紫粉)·황설비(黃屑緋)·홍멸자(紅滅紫)를 쓰지 못한다.”8)

6) 男子褐袴 婦長襦 不粉黛 率美髮以縑首 以珠綵飾之 男子剪髮 鬻冒以黑巾. 『구당서』신라조에 “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而朝服尙白……婦人髮纏頭 以綵及珠爲飾 髮甚長美.”라 하여 거의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 服色尙素 婦人辮髮纏頭 以雜綵及珠爲飾.(《수서》동이전 신라조), 服色尙畫素 婦人辮髮纏頭 以雜綵及珠爲飾.(《북사》신라전)

8) 平人 幞頭只用絹布 表衣袴只用布 內衣只用絹布 帶只用銅鐵 靴禁烏麋 鍔文紫皮 靴帶只用鐵銅 履用麻已下 布用十二升已下 平人女 表衣只用綿紬布 內衣只用紵絹綿紬布 袴用紵已下 表裳用絹已下 襪只用綾已下 帶只用綾絹已下 襪○用無文 襪用紵綿紬已下 梳用素牙角已下 釵用鋤石已下 布用十五升已下 色禁赭黃紫紫粉黃屑緋紅滅紫.(《삼국사기》잡지 색복조)

고 하였고, 기용(器用)으로는 털 댄 담요, 모포(毛布)나 호피(虎皮), 중국 담요 등을 쓰지 못한다<sup>9)</sup>고 하였으며, 거기(車騎)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 안교(鞍橋)는 자단(紫檀)·침향(沉香)·황양(黃楊)·괴(槐)·자(柘)의 사용을 금하고, 또,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하며 안장언치는 소와 말의 가죽을 쓰고, 안장에 까는 요는 가죽을 쓴다. 말다래는 버드나무나 대를 쓰고, 재갈은 쇠를 사용하며, 등자는 나무와 쇠를 사용하고, 고삐는 힘줄이나 삼으로 잡아맨다. 여인의 경우 안교는 자단·침향·황양·괴목의 사용을 금했고, 또 금·은·옥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했다. 안장언치와 안장 방석은 계수금라(鬪繡錦羅)·세라(總羅)·능(綾)과 호피를 금하고, 재갈과 등자는 금·은·유석을 금하며, 또 금·은으로 장식하는 것을 금한다. 말다래는 가죽을 사용하고, 고삐는 실로 짠 것이나 자자분(紫紫粉)으로 광채 있게 두른 실끈의 사용을 금한다<sup>10)</sup>고 하였으니, 이를 고려하면, 평인들은 그들의 신분에 맞추어 복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남자의 의복은 여자들의 의복보다 더 초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2. 식생활

가야문화권시대에 이 지방 평인들의 식생활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전에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 심기에 적합하다.”<sup>11)</sup>고 하였으니, 당시 평인들은 쌀과 오곡(밀·조·콩·기장·수수)을 주식으로 하였고, 동남해와 낙동강 하구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부식은 어패류와 해조류 등 해산물을 먹는 식생활이었을 것이다.

9) 四頭品至百姓……又禁毳毳毳虎皮大唐毳等。(『삼국사기』 잡지 기용(器用)조)

10) 四頭品至百姓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柘 又禁飾以金銀玉 鞍轡用牛馬皮 鞍轡用皮 障泥用楊竹 銜用鐵 鏡用木鐵 鞞鞞用筋若麻爲絞 四頭品女至百姓女 鞍橋禁紫檀沉香黃楊槐 又禁飾金銀玉 鞍轡鞍坐子禁鬪繡錦羅總羅綾虎皮 銜鏡禁金銀鍮石 又禁飾金銀 障泥但用皮 鞞鞞禁組及紫紫粉暈條 (《삼국사기》 잡지 거기조)

11)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당시 조리법은 오곡의 경우, 아궁이 위에 물을 담은 연질독을 놓고, 그 위에 다시 시루를 놓은 다음 곡물을 담아 찌는 방법이며, 국·찌개류는 항아리나 독에 담아 끓이는 방법이었고, 그릇류로는 토제 칸막이접시와 크고 작은 각종 토기류의 독(손잡이달린독, 연질독 등)·항아리(곧은입항아리, 손잡이달린항아리 등)·굽다리접시·보시기·바리·접시 등이 사용되었다.<sup>12)</sup>

5세기 후반부터 서서히 밀려드는 신라문화는 이들의 식생활문화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정이 되나,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이 전시대와 같았으므로 음식문화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릇류에 대하여 《구당서》 신라조에 “그들의 식기는 버드나무 그릇을 쓰는데, 구리그릇과 질그릇도 있다.”<sup>13)</sup>라 한 것으로 보아, 목기·동기·부가구연목항아리·뚜껑접시와 같은 그릇류가 사용됨으로서 그릇류의 가지 수는 늘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구로는 쇠낫·쇠손칼·쇠스랑·따비 등이 사용되었고, 해산물 생산을 위한 어로기구로는 그물·철제 낚시바늘·작살·석방렴·통발 등이 사용되었다.

### 3. 주거형태

《삼국유사》 권제2 「가락국기」조에 의하면, 수로왕이 거처한 궁궐이 모자불전토계삼척(茅茨不剪土階三尺)이라 하였으니, 가야시대의 이 지방 평인들의 가옥은 주로 몇집에 처마의 띠도 자르지 않고, 섬들의 높이도 3자 이내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신라시대에는 흥덕왕 9년(834)에 주거제도에 대한 교지에 의하면, 백성들은 방의 장광(長廣)이 15자(6.25평)를 넘지 못하며, 산유목(山楡木)을 쓰지 못하고, 조정(藻井=수초를 그린 천정)을 하지 못하며, 당와(唐瓦)를 덮을 수 없으며, 수두(獸頭=지붕 위에 얹는 짐승형 치레

12) 부산박물관, 《부산의 역사와 문화》, 2002, P.37 참조.

13) 其食器用柳栝 亦以銅及瓦.

물)·비침(飛簷=날아갈 듯한 형상의 처마)·공아(栱牙=기둥 위의 가설 方木)·현어(懸魚=물고기상을 매다는 것)를 쓸 수 없었다. 그리고 금·은·유석·구리·땀납으로 장식할 수 없으며, 섬돌은 산석(山石)을 쓰지 못하고, 담장은 6자를 넘지 못하며, 또 들보를 가설하지 못하고, 석회(石灰)를 바를 수 없었다. 큰문과 사방문을 만들 수 없고, 마구(馬廐)는 두 마리(匹)를 둘 만하게 지어야 되었으므로<sup>14)</sup> 평인들의 가옥은 대부분 몇집으로 초라했던 것이다.

### Ⅲ. 일생의례

인간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고비마다 의례로 매듭들을 지어나간다. 인간 삶의 고비에는 출생·성년·결혼·죽음이라는 큰 고비가 있다. 이 고비를 경계로 하여 인간의 삶은 그 전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므로 고비들은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과 같은 성격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개체로서의 인간은 가족과 친족 등 혈연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는 동시에 사회집단과도 밀접한 관계를 짓고 생활하기 때문에 치르는 의례도 그 성격이나 기능이 다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한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전이의례, 이전에 속해 있던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이행할 때 치르는 통합의례, 그리고 그가 속해 있던 집단으로부터 분리될 때 치르는 분리의례 등이 있는데, 출생의례는 전이의례에, 성인의례와 결혼의례는 통합의례에, 그리고 장속의례는 분리의례에 해당된다. 여기에

14) 四頭品至百姓 室長廣不過十五尺 不用山楡木 不施藻井 不覆唐瓦 不置獸頭飛簷栱牙懸魚 不以金銀鍮石銅鐵爲飾 階砌不用山石 垣墻不過六尺 又不架梁 不塗石灰 不作大門四方門 廐容二馬 (《삼국사기》 잡지 옥사조).

서는 고문헌에 기록된 것만 기술하고자 한다.

## 1. 출생의례

삼한시대로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이 지방의 출생의례 가운데 특기할 것은 편두(偏頭)와 문신(文身)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전에 “어린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한사람의 머리는 모두 납작하였으며, 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는 문신을 했다.”<sup>15)</sup>라 기록하였다.

편두는 왜 행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문신은 출생하자 곧 행한 것이 아니라 성년식과 관련된 의식의 하나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성년식과 혼례

고대에 이 지방의 평인들이 행한 성년의례는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에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성곽을 쌓게 되면, 모든 용맹하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모두 등가죽을 뚫고 큰 끈을 거기에 꿰어 한 발췌 되는 나무를 쫓아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하는데도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일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건장한 것이라 여긴다.”<sup>16)</sup>라는 기록 가운데, ‘등가죽을 뚫고 큰 끈을 거기에 꿰어 한 발췌 되는 나무를 쫓아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하는 것’을 성인식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지

15) 兒生便以石壓其頭 欲其偏 今辰韓人皆偏頭 男女近倭亦文身.

16) 其國中有所爲 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錘之 通日囉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후한서》 동이전 한조에는 “其人壯勇 少年有築室 作力者輒以繩貫脊皮 緹以大木 囉呼爲健.”이라 기술하였다.



계를 설명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아픔을 참고 노동에 필요한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견장’한 것이라 여긴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성인식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 성인식과 관련된 것은 문신이 아닌가 여겨진다. 문신은 단순히 신체의 미관(美觀), 계급의 표시, 종족의 표시, 성년의 표장(表彰) 등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해변에 살며 어로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은 물에 서식하는 악어(惡魚)의 접근을 막기 위해 문신을 행하기도 하였다. 이 지방도 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어로를 하기 마련이었고, 따라서 바다에 서식하는 악어의 침해를 막기 위해 문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개사회에서는 지금도 피부에 입묵(入墨)할 때 의식을 베풀고 금기를 철저히 지킨다고 한다. 이 지방 평인들도 문신을 할 때 입묵의례와 그에 따른 금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의례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삼국지》 위서동이전 변진전에 “혼인하는 예법은 남녀의 분별이 있었다.”<sup>17)</sup>라 하였고, 《수서(隋書)》동이전 신라조에는 “혼인하는 예절은 오직 술과 밥을 해서 나누어 먹을 뿐으로 음식을 잘 차리고 못 차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살림 정도에 따라서 한다. 혼인한 날 저녁에 여자가 먼저 시부모에게 절을 하고 다음으로 남편에게 절한다.”<sup>18)</sup>라 하였다. 곧 가야문화권 속에 있을 때 그들의 혼례에는 혼인에 필요한 제반 준비물에 분별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신라문화권에 속하면서 서서히 혼인의례 절차가 바뀌어 양가에서 형편에 따라 음식물을 준비하여 하례객을 대접하고 신부는 시부모를 남편 이상으로 존중하였던 것이다.

17) 嫁娶禮俗男女有別.

18) 婚嫁之禮 唯酒食而已 輕重隨貧富 新婚之夕 女先拜舅姑 次即拜夫. 《북사(北史)》 신라전에는 “婚嫁禮 唯酒食而已 輕重隨貧富 新婚之夕 女先拜舅姑 次即拜大兄夫.”라 기술하였다.

### 3. 장례

장례에 대하여서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변진전에서는 “사람이 죽어 장사할 때 큰 새의 깃을 다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새처럼 날아오르라는 뜻이다.”<sup>19)</sup> 라 하였고, 같은 책 한전에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데에는 관은 사용하나 곱은 사용하지 않는다. 소와 말을 탈 줄 몰라 소와 말을 모두 장사지내는 데 쓴다.”<sup>20)</sup>라 기술하였으며, 《수서》동이전 신라조에는 “사람이 죽으면 관을 쓰고 염습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을 만든다. 왕이나 부모 그리고 처자가 죽었을 때 일년밖에 복을 입지 않는다.”<sup>21)</sup>라 하였다.

삼한시대 내지 가야시대에는 장례 때 큰새의 깃을 사자에 달거나 사자 옆에 두었다는 것은 탈신혼(脫身魂)의 사유관에서 이루어진 관습이며, 당시는 독널무덤(甕棺墓)이나 앞트기식돌방무덤(橫口式石室墓)를 만들었을 것이고, 5세기 이후에는 시신을 염습하여 관(棺)에 넣어 매장하였고, 상복도 일년밖에 입지 않았을 것이다.

## IV. 세시풍속

상대부터 부산지방에 거주한 평인들이 중요시한 세시적 날은 설날, 대보름, 2월보름, 3월 계육일, 5월 단오, 6월 유두, 8월 한가위, 10월 보름이었으리라 추정된다.

19)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

20) 其葬有棺無槨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21) 死有棺斂葬 起墳陵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북사(北史)》신라전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 여러 행사가 있었을 것이나 고문헌에 다만 원일에 일월신에 대하여 절을 했다는 기록뿐이다. 《구당서》신라조에 “원일(元日)을 중히 여겨서 서로 이 날을 축하하고 연회를 베푸는데, 해마다 이 날에는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sup>22)</sup>고 하였으니, 설날에 그 해의 집안 안과태평과 풍농이나 풍어에 대한 기원행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방이 신라문화권에 속하게 되고 신라에서 국가적 행사의 하나로 연등회가 정월 보름에 거행되자 이 지방에서도 세시풍속의 한 행사로 거행되었으리라 추정되는데, 이 연등회는 불이 갖는 정화력과 악귀퇴치력이 불교의 성행에 따른 등공양(燈供養) 의식과 습합하여 큰 행사로 발전한 것이다. 한편 처용설화에 바탕을 둔 처용의 형상을 그려 문에 붙이는 제액행사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연적 공동체의 안녕과 풍년(豐稔)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올렸을 것이다. 이 점은 당제와 관련된 설화로 고대의 장산국에서 거행한 산신제의의 유속이라 추정되는 재송동의 고당신(高堂神) 설화에서 엿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재송동의 장자벌이라는 농경지에 고씨(高氏)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우레와 함께 하늘에서 선인(仙人)이 내려와 마을의 예쁜 처녀 고선옥(高仙玉)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슬하에 10남 10녀를 두고 살았다. 그 뒤 회혼일(回婚日)에 선인은 부인과 자식들을 두고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부인은 그 때부터 자녀를 낳던 제왕반 바위 아래 호룡불을 켜고 외가리 사원에서 불공을 드리며, 부부암 위에 올라가 남편인 선인이 돌아오기를 기원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인의 꿈속에 선인이 나타나 “나를

22) 重元日 相慶賀燕饗 每以其日拜日月神.

찾을 생각은 말고 나의 형체나마 보고 싶거든 장산 정상으로 오시오”라는 말을 남겼다. 부인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장산 정상으로 오르다 정상 가까이에서 그만 미끄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 뒤 신라 초기에 이곳 주민들이 고씨 할머니의 고귀한 망부심과 유덕을 길이 기리기 위해 장산에 제당을 지어 당산 할머니로 모시고 매년 정월 보름날 해가 질 무렵 동태민안(洞泰民安)과 재앙이 없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 당신(堂神)설화는 신선사상으로 많이 윤색되었으나 장산국시대부터 산신제가 거행되었음을 알려주는 설화라 할 수 있다.

2월 보름에는 복회 행사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삼국유사》 권제5 감통제7 김현감호(金現感虎)조에 “신라 풍속에 매년 중춘이 되면 초8일부터 보름날까지 서울 안 사녀들이 경쟁적으로 흥륜사의 전각과 탑을 도는 것으로 복회를 삼았다.”<sup>23)</sup>라 하였다. 이 지방이 신라에 복속된 뒤로 신라의 불교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2월 보름을 전후하여 탑돌이 행사를 가지고 가내의 안과태평과 극락왕생을 기원했을 것이다.

3월 계욕일(禊浴日)은 곧 3월 상사일(上巳日)로 이 날에는 물가에 가서 더러움과 재액을 씻고 회음(會飲)으로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삼국유사》 권제2 가락국기조에 액막이 의례를 갖는 3월 계욕일(禊浴日)에 물가인 북구지(北龜旨)에 구간(九干)을 비롯한 무리 이삼백 명이 모였다는 것과 《삼국사기》 열전 온달(溫達)조에 “고구려는 항상 봄 3월 3일에는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하여 잡은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를 지냈다.”<sup>24)</sup>라 한 점으로 보아 가야문화권에 속한 이 지방에도 평인들은 계욕의례를 가졌던 것이 분명하다.

23)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遶輿輪寺之殿塔 爲福會。

24)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삼국사기》 열전제5 온달조)

5월은 파종이 끝나는 달이라 이 달에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조에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이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탁무(鐸舞)와 흡사하다. 시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sup>25)</sup>라 하였으니, 이 달에 파종한 식물의 성장을 위한 의례를 가지고 난 뒤에 음주 가무의 행사들(식물 성장의 모의놀이들)을 가졌던 것이다. 또 이 달에는 파종이 끝난 뒤이라 다소 휴식을 가질 수 있어, 여러 가지의 놀이와 여름철의 재액을 미리 막기 위한 제액의례를 가졌던 것이다. 《기장현읍지》 풍속조에 5월단오에는 그네뛰기 놀이를 하였다<sup>26)</sup>고 하였으니 부녀자들은 그네뛰기 놀이를 하였을 것이고, 남자들은 씨름놀이와 같은 힘 겨루기의 놀이들을 하였을 것이다.

6월 유두일도 3월 계육일과 같은 성격의 행사들을 가졌을 것이다. 《동국세시기》 유월조에 보면, “김극기집에 동도에 전해내려오는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버린다. 그리고 계음을 유두연이라 한다.”<sup>27)</sup>라 하였으니, 5세기 중반 이후 신라문화권에 놓인 이 지방 평인들도 액막이로서 계음(禊飲)의례를 가졌으리라 추정된다.

8월 한가위날에 대하여 《구당서》 신라조에 “8월 15일을 중히 여겨서 군신(群臣)을 모아 풍악을 울리고 연회를 베풀며 궁정에서 활쏘기도 한다.”<sup>28)</sup>라 하였고, 《삼국사기》 신라본기 유리니사금 9

25)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飲酒 晝夜無休 其舞數十人 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26) 五月五日 爲鞦韆戲.

27) 六月十五日 東俗稱流頭日 按金克己集 東都遺俗 六月望日 浴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爲禊飲 謂之流頭宴.

28) 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群臣射其庭.

년조에는 이 날을 ‘가배(嘉俳)’라 하고 가무백희(歌舞百戲)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지방의 평인들도 월신(月神)에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하루를 즐겼으리라 여겨진다.

10월은 수확의 달이다. 이 달에는 농사지음이 끝났다고 하여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전조에 “해마다 시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하였다.”고 하였으니, 주로 시월 보름 경에 이런 제의적 행사를 거행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리고 선달 그믐 제야(除夜)에도 한 해를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제액초복(除厄招福)의 행사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삼국유사》 권제1 「우사절유탉(又四節遊宅)」조를 참조하면, 비단 경주에서만 4계절의 놀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부산지방에서도 4계절에 따라 평인들이 놀기 좋은 산야에 나아가 하루를 놀이로써 즐겼으리라 추정된다.

## V. 신앙생활

원삼국시대로부터 신라통삼시대까지 부산지방에 거주한 평인들의 신앙생활을 고문헌과 이 지방의 고분이나 패총 등지에서 출토된 자료를 통해 고구해보면, 천신·일신·월신·산신·용신·조신 등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여, 이들 신격에 대한 제의가 세시(歲時)에 따라 일정한 날짜에 거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첫째, 천신에 대한 신앙심에 대하여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전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귀신을

밋기 때문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서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天君)이라 한다. 또 여러 나라에서는 각각 별읍이 있어 그것을 소도(蘇塗)라 하고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sup>29)</sup>

5월의 과종 뒤와 10월의 수확 뒤에 모시는 귀신은 문백으로 보아 천신이다. 천신제의 주관은 천군이 하며, 천군의 선정은 지금이 지방 당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한 듯하다. 그리고 나라에는 별읍이 있어 그것을 ‘소도’라 하고, 그 안에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천신을 섬겼더니, 천신을 섬기는 장소인 ‘소도’는 성소(聖所)요, 거기에 세운 큰 나무는 우주목(宇宙木)의 상징성을 띠고, 그 나무에 매단 방울은 샤먼의 심볼로서 악귀(惡鬼)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를 냄<sup>30)</sup>으로 달아 둔 것이며, 북은 샤먼의 우주여행을 위한 말ियो 배를 상징하기<sup>31)</sup> 때문에 우주목에 매단 것이다. 다시 말해 별읍의 성소에 세운 큰 나무는 천신의 하강과 상승의 길로, 방울은 천신을 맞이하는 도구로, 북은 천신과 무격이 타고 다닐 승차물로 상징되는 것인 만큼 별읍이라는 성소에 천군이 이것들을 마련하고 천신에게 풍농에 대한 기원과 감사드리는 제의를 베푸는 것이라 추정된다.

둘째, 일월신에 대한 신앙심도 천신에 대한 신앙심만큼 강했으리라 여겨진다. 농경생활을 영위하려면 적당한 일조량(日照量)과 일정 양의 물이 풍농과 직결된 것인 만큼 이를 좌우하는 일월신에 대해 의례를 행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구당서》 신라조에 “원일(元日)에는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한다.”<sup>32)</sup>라 기록된 것으로

29)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懸鈴鼓 事鬼神.

30) 최남선, <薩滿教節記>, 《啓明》 제19호, 1927, P. 34.

31) 김열규, <한국 신화 원류 탐색을 위한 시베리아 샤머니즘 및 신화>,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하)》, 소화, 1996, P.362.

32) 每以其日拜日月神.(《구당서》 신라조)

보면 단순히 일월신에게 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년의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일월신에게 그 해의 풍양(豐穰)과 안녕을 기원하며 절을 했을 것이다.

셋째, 산신(山神)에 대한 숭배관념이 대단했으리라 추정된다. 《구당서》 신라조에 “신라인들은 산신에게 제사하기를 좋아하는다.”<sup>33)</sup>라 하였으니 산신이 그들의 생활과 직결된 신임을 알 수 있다. 가야산 산신이 정견모주(正見母主)요, 선도산 신모가 사소(娑蘇)요, 치술령 산신이 박제상의 처요, 운제산 성모가 남해왕의 부인인 운제(雲帝)부인이요, 신라 때 대사(大祀)를 지낸 세 산(奈歷·骨火·穴禮)의 신이 다 여신임을 감안할 때, 가야시대나 신라시대에 이 지방에 생존한 평민들은 산신을 자기들의 생존을 보호하고 보장해주는 여신으로 관념하고 산신에 대하여 경외심을 가지고 숭배한 것이라 추정된다. 현재 이 지방의 당제(堂祭)를 보면 일반적으로 산신제(主山의 신=남성신)와 당산제(당산의 신=여성신)에서 당산제를 우위에 둬서 보아 당산의 산신(여성신)에 대한 제의가 마을의 안녕과 풍등(豐登)을 위한 제의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남해신(남해용신)에 대한 제의가 신라시대 때부터 중사(中祀)<sup>34)</sup>로 이 지방에서 거행됨으로 인하여 용신에 대한 신앙심이 더욱 깊어졌으리라 추정된다. 중사로 해신에게 제의를 베풀던 제장(祭場)이 거칠산군(동래군) 형변부곡(兄邊部曲)이었다는데, 《동래부읍지》 고적조에 형변부곡은 부(府)의 남쪽 해안에 있다<sup>35)</sup>고만 기술되어 있고 정확한 소재지는 밝히지 않았다. 《삼국유사》 권제5 신주제6 「혜통항룡(惠通降龍)」조에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33) 好祭山神.(《구당서》 신라조)

34)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四海: 東阿等邊(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라 기술됨.

35) 在府南海岸 新羅祀南海神于此 載中祀



혜통이 당나라 고종의 딸이 교룡(蛟龍)에 의하여 병든 것을 흰콩 한 말과 검은 콩 한 말에 주문을외어 신병(神兵)을 만들어 교룡을 퇴치하자 공주의 병이 나왔다. 교룡은 혜통이 자기를 물리친 것을 원망하여 신라 문인림(文仍林)으로 와서 인명을 너무 심하게 해치므로 정공(鄭恭)이 사신으로 당나라에 가서 혜통을 만나 “스님이 쫓은 독룡이 본국으로 와서 그 해가 심하니 속히 가서 그것을 없애주세요.”라 하였다. 이에 혜통은 정공과 함께 귀국하여 용을 퇴치하니, 용은 또 정공을 원망하여 정공 집 밖에 버드나무로 태어나니 정공은 이 나무를 매우 사랑하였다. 신문왕이 죽어 산릉을 만들고 장례길을 닦는데 정공 집의 버드나무가 장례길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그 나무를 베려 하니 정공이 “차라리 내 머리를 베었으면 베었지 이 나무는 베지 말라.”라 하니, 효소왕은 정공이 혜통의 신술(神術)을 믿고 왕에 대한 불손한 마음을 품었다고 생각하여 그를 목베어 죽이고 그 집과 버드나무를 물어버렸다. 이에 용은 정공에게 복수를 하고 기장산(機張山)으로 와서 웅신(熊神)이 되어 백성에게해를 심하게 끼치기에 혜통이 기장산으로 와서 용을 달래어 불살계(不殺戒)를 가르치니 그 해가 그쳤다.

《구기장군향토지》에 의하면 기장산을 현재의 정관면과 일광면 사이에 있는 달음산에 비정하고, 달음산 옥녀봉의 동쪽에 용굴이 있다고 하였다. 용과 곰 그리고 범은 다같이 고대인에게는 신물(神物)로 사유되었다. ‘신(神)’의 고대어가 ‘곰’이기 때문에 웅신이 웅신으로 변전한 것이라 추정된다. 하여튼 이 설화를 통해 고대의 이 지방민은 용신과 곰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곰에 대한 신앙은 동삼동 패총에서 곰 형상의 토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부산지방에 거주했던 고대인들뿐 아니라 가야시대와 신라시대에 생존했던 취락민들은 달동물(lunar animal)인 곰을 부활

력 내지 재생력이 있는 신성동물로 숭배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용신과 관련된 기우제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가뭄이 들면 명산대천에 가서 기우제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36)</sup> 부산지방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뭄이 들면 성소요 영장(靈場)인 금정산 동쪽에 있는 변우암<sup>37)</sup>이나 승악산<sup>38)</sup>·고지도신사<sup>39)</sup>·용추<sup>40)</sup>에서 지방 수령이 직접 제주가 되어 기우제를 지냈거나 평인들이 주체가 되어 기우제를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 동평현 남쪽 1리에 모등변신사(毛等邊神祠)가 있었다는데, 이 신사에서 어떤 신위(神位)를 모셨는지 알 수 없다.

다섯째, 삼한시대나 가야문화권시대에 이 지방의 평민들은 가옥신 가운데 조신(竈神)에 대하여 깊은 신앙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변진조에 “변진은 진한과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들 조신(竈神)을 모신다.”<sup>41)</sup>라 하였다. 즉 뒷날 가야의 문화권이 된 변한인들이 가옥의 서쪽에 조신(부엌신)을 위한 제단을 설치하였다고 하니, 당시 이 지방의 평민들도 가옥의 서쪽에 성소를 마련하여 조신을 모시고 제사를 올렸던 것이다. 가옥의 서쪽에 조신을 모신 것은 서쪽이라는 방위가 여성과 관련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조신은 집안의 길흉화복과 재보(財寶)를 관장하는 여신이요 화신(火神)이다. 고대인들은 불을 숭앙하였고, 따라서 음식을 조리하는 부엌에 화신이 좌정하고 있다는 속신관을 가지게 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36) ① 沾解尼師今七年 自五月至七月不雨 禱祀祖廟及名山 乃雨. ② 眞平王五十年 夏大旱 移市畫龍祈雨. ③ 憲德王九年夏五月不雨 遍祈山川 至秋七月乃雨.(《삼국사기》 본기)

37) 鬮雨巖；在府北二十里金井山東 禱雨有應故名.(《동래부읍지》 산천조)

38) 勝岳山：在府南三十里 自仙岩山來 祈雨有應.(《동래부읍지》 산천조)

39) 古智島神祠：在府南二十三里 以石爲壇 古禱雨有應 今廢.(《동래부읍지》 단묘조)

40) 龍湫：在沒雲臺下 天旱祈雨(《嶺南鎮誌》)

41)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그리고, 영도(절영도)는 이름난 말을 사육하는 목장으로 유명하였다. 《동래부읍지》 도서조에 절영도(絶影島)는 부의 남쪽 30리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설화를 기재하고 있다.

고려 태조 7년 8월에 견훤이 사자를 시켜 절영도의 말 한 필을 헌납하였는데, 뒤에 절영도 명마가 들어오면 백제가 망한다라는 참언을 듣고 후회하고는 9년에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태조는 웃으면서 돌려주도록 허락하였다.<sup>42)</sup>

영도는 신라시대부터 목장으로 명마의 산지였다. 따라서 말의 생육(생육)과 질병 예방 및 퇴치를 기원하는 마제(馬祭)의 거행 장소로서 절영도신사(絶影島神祠)<sup>43)</sup>를 두었던 것이다. 조선조 때 역촌(驛村)이었던 금정구 하정리(荷亭里)에 동제(洞祭)를 지낼 때에 한 제차(祭次)로서 마당제(馬堂祭)가 있었던 점<sup>44)</sup>과 민속에 시월 오일(午日)을 말날이라 하여 우마(牛馬)를 위한 제의를 베푸는 점을 고려하면, 절영도신사에서 거행하는 마제는 소사격(小祀格)으로서 지방 수령에 의해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삼동 패총에서 조개가면과 멧돼지 형상의 토우가 출토된 점으로 보아 부산지방에 거주했던 고대인들뿐 아니라 가야시대와 신라시대에 생존했던 취락민들은 공동제의 때 조개의 번식을 위해 조개가면과 동류의 가면을 착용하고 제의를 거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다산력의 상징적 동물로서의 멧돼지에 대한 번식력을 통한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42) 在府南三十里 有牧場 高麗太祖七年八月 甄萱遣使 獻絶影島馬一匹 後聞絶影名馬 至百濟亡之讖悔之 九年 使人請還其馬 太祖笑而許之 壬辰亂 爲倭賊所掠 崇禎癸酉 復置牧場 在釜山浦海中.

43) 絶影島神祠 謂之馬堂 島有場故設.(《釜山鎮誌》 고적조)

44) 김승찬, <한국의 마제고>, 《석주선교수회갑기념 민속학논총》, 1971, PP. 183-198.

## VI. 구비문학

구비문학의 대표적 두 장르는 설화와 민요다. 그리고 민중 의식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장르는 설화이며, 설화 중에서도 전설이다. 기원 전후로부터 신라 말기까지에 형성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우리 지방의 대표적인 전설에는 금정산의 범어사 창건 전설, 장안사의 척판암(擲板庵) 전설, 기장 내동마을의 안적사 전설, 일광면 화전리의 당곡사(堂谷寺) 전설, 정관면 용수리 덕전마을의 석탑사(石塔寺)에 얽힌 전설, 정관면 월평리의 반월성(半月城)에 얽힌 전설 등이 있다.

범어사 창건 전설은 신라 문무왕 때 왜구가 대거 침범하므로 왕이 그 퇴치 방안을 아무리 생각하여도 묘책이 서지 않았는데, 비몽사몽간에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대왕은 근심하지 마옵소서. 태백산중의 의상대사는 금산보개여래(金山寶蓋如來)의 후신으로 항상 여러 신중(神衆)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대왕께서는 의상대사를 맞이하여 친히 함께 금정산으로 가시어 금정암(金井岩) 밑에서 주야 7일간 화엄신중경(華嚴神衆經)을 독송하고 정근(精勤)하시면, 미륵여래가 금색신(金色身)을 현현(顯現)하고 사방의 천왕이 각각 병기를 가지고 색신(色身)을 나타낼 것이며, 비로자나여래가 금색신을 나타내어 보현보살·문수보살·향화동자(香華童子) 등 40법체(法體)를 거느리고 여러 신과 더불어 각각 병기를 가지고 해동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병이 자연히 물러갈 것입니다. 만약 후대에 어진 이가 이어나지 않아 왜적이 침입하고 사방에 병란이 일어나거든, 또한 이 바위 밑에서 화엄정근(華嚴精勤)을 하시면 자손이 끊이지 않고 간과(干戈)가 길이 쉬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문무왕은 의상대사를 불러 왜구의 침입을 미리 막고 또 침범한 왜구가 있다면 이들을 퇴치하기 위해 금정산 밑에 범어사를 짓게 한 것이다.

장안사의 척판암(擲板庵) 전설은 원효대사가 하루는 천안통(天眼通)으로 중국 종남산(終南山) 운제사(雲際寺)의 대웅전을 투시해보니, 천여 명의 승려들이 예불을 보고 있는데 곧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려 하므로 대사가 소반에다가 ‘해동원효척반구중(海東元曉擲盤救衆)’이라 쓰고 힘껏 날렸더니, 이 소반이 운제사의 대웅전 앞뜰 위에 날아가서 뒹뒹거리며 공중에서 돌았다. 이에 예불을 마친 승려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그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 소반과 함께 대들보가 내려앉아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에 승려들이 소반에 쓰인 글을 보고 그곳 승려 천명이 목숨을 구해준 원효대사를 찾아와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 모두 성불하고 그 육신이 수도하던 산에 바위로 변하였으므로 이 바위가 있는 산을 천성산(千聖山)이라 이름지었다.

안적사(安寂寺)의 전설도 원효대사와 관련된 전설이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의형제를 맺고 같이 구도의 길을 찾아 명산을 두루 순방하며 불도에 정진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두 대사가 장산 기슭을 지나는데, 숲 속에서 갑자기 피꼬리들이 떼로 날아 모여들어 두 대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이에 두 대사는 이곳을 성지로 생각하고 형뻘인 원효대사가 토굴을 지어 의상대사가 불도에 정진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는 지금의 안적사가 있는 곳에 토굴을 짓고 불도에 정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상대사는 선녀의 천공(天供)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선녀로부터 받아먹는 천공을 원효대사에게 자랑하고 싶어 원효대사에게 천공을 같이하자고 청하매,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함께 공양하기 위해 그의 토굴로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선녀의 공양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원효대사는 의상대사와 헤어져 자기 토굴로 돌아갔다. 원효대사가 돌아가자 그때서야 선녀가 천공을 가지고 의상대사 앞에 나타난 것이다. 화가 난 의상대사가 선녀에게 “왜 천공이 늦었느냐”고 나무라니, 선녀가 말하기를 “천공을 제 시간에 가지고 토굴에 오니, 토굴의 주위에 화광이 솟아올라 둘러

있기에 겁이 나 못 들어왔다.”고 하였다. 그 뒤로부터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일광면 화전리의 당곡사(堂谷寺) 전설은 신라시대에 이 절은 큰 절로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절에 게으른 공양주가 어찌하면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중, 어느 날 한 과객이 이 절에 찾아와 머물게 되자, 공양주가 과객을 보고 “어찌하면 오는 신도가 적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 과객이 “나무를 거꾸로 집어넣어 불을 때어 3년간 공양을 지으면 신도들의 움이 줄어들 것이다.”라 하였다. 공양주가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 때부터 연기가 온 절에 가득 차 3년이 지나고부터 신도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한다.

정관면 용수리 덕전마을의 석탑사(石塔寺)에 얽힌 전설은 신라 선덕왕 13년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 곳을 지나는데, 동해 바다에서 큰 광명이 백운산 중턱에 비치므로 두 대사는 이상하게 여겨 그 산 중턱에 가서 장엄한 상봉을 쳐다보니 미륵부처님이 계시는지라 원효대사는 “장엄한 백운산 상봉에 부처님이 계시니 미륵부처님이시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니, 무언(無言), 무언, 무언이시니 이 설법을 듣는 중생은 모두가 성불하신다네.”라 찬탄하고 그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리니 홀연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서 “나의 처소에 두 분의 대사가 오신 것은 큰 기쁨이오니 대사께서는 이 곳에서 도를 성취하소서.”라 하시고 사라졌다. 이에 원효대사는 의상대사를 보고, “나는 여기에서 중생의 무상도를 기필코 이루겠다.”고 하고 암자를 짓고 불도에 정진하게 되었고, 의상대사는 영축산으로 가셨다는 전설이다.

정관면 월평리의 반월성(半月城)에 얽힌 전설은 삼국시대 초기에 이 곳은 거칠산국에 속해 신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잦았다. 신라 탈해왕 때 신라의 거도장군이 정병천명을 거느리고 이곳을 침범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이 곳 성주는 오히려 선수를 쳐서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병마를

모집하여 군세를 증강하는 한편 성 근처에 있는 진계등(陳界嶺)에서 정예군을 양성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그런데 성주에게는 신통술을 부리는 여동생이 있어, 그녀는 신단(神壇)을 배설하고 주문을 외면 신병(神兵)이 나타나고, 병법에도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점술(占術)에도 능통하여 앞일을 훤히 아는 여결(女傑)이었다. 성주가 전쟁 준비를 끝내고 신라에 정벌군을 출동시키려 하자, 여동생이 성주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니, 성 뒤에 있는 대밭에서 동이 만한 죽순이 올라오거든 출병하라.”고 간곡히 만류하였지만, 성주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출병하는 대출정에 요사스러운 점술로써 군사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다고 격노하여 여동생의 신단을 때려부수자 여동생은 그만 혼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성주는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출전하여 신라군과 싸웠으나 패전하고 성을 빼앗겼다. 과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대밭에 동이만큼 큰 죽순이 솟아올라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정산과 범어사의 명칭 유래에 대하여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지23 산천조에 “현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산마루에 3장(丈)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 자(尺)이며, 깊이는 7치(寸)쯤 된다.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이렇게 그 산을 이름지었고, 인하여 절을 짓고 범어사라 불렀다.”<sup>45)</sup>라 하였다.

원효대사와 관련된 전설로는 척판암 전설·안적사 전설·석탑사 전설이 있고, 의상대사와 관련된 전설로는 범어사 창건전설이 있으며, 절의 쇠락 전설로는 당곡사 전설이 있다. 그리고 출정 실패의 전설로는 월평리 반월성 전설이 있고, 영암(靈岩) 전설로는 금

45) 金井山：在縣北二十里 山頂有石 高可三丈 上有井圓十餘尺 深七寸許 有水常滿 旱不渴 色如黃金 世傳 有一金色魚 乘五色雲 從天而下 游泳其中 以此名其山 因創寺 名梵魚。

정산정의 금정암 전설이 있다.

범어사 창건 전설은 범어사의 창건이 왜적 퇴치라는 호국불교적 성격으로 세워진 사찰임을 강조하기 위해 형성된 설화이다.

척관암 전설·안적사 전설·석탑사 전설은 통불교의 사상으로 대중교화에 힘쓴 원효대사를 찬양하기 위해 형성된 전설이다. 특히 안적사 전설에서 의상대사의 천공(天供)을 통한 교만심을 꺾은 원효대사의 위광(威光)은 원효대사의 불도정진 자세가 수승(殊勝)함을 보이기 위한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당곡사 전설은 과객기피담(過客忌避譚)유형 전설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과객기피담유형 전설의 순차적 구조는 ‘부잣집에서 과객 접대를 싫어한다.→도사에게 과객을 안 오게 하는 방도를 묻는다.→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 과객이 끊어지고 따라서 집안이 망하다’로 되어 있다. 곧 당곡사 전설은 과객 대신에 신도, 며느리 대신에 공양주, 도사 대신에 과객, 명당에 손을 대거나 지형 변경의 풍수지리설 대신에 아궁이의 그릇된 불 때기의 행위로 인물들과 행위가 바뀌었을 뿐 서사구조는 동일하다.

반월성 전설은 역모담(逆謀譚) 유형의 전설로 역모담인 경북 영주의 정희량(鄭希亮) 전설이나 안동의 조수만 전설의 화소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오늬의 힘 겨루기 화소 대신에 오늬의 지략 화소, 메밀씨로 거사 시기의 점치기 화소 대신에 죽순으로 거사 시기 점치기 화소의 변이가 생겼고, 물 명당(明堂) 화소가 빠진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범어사(梵魚寺)의 사찰 이름 연기 설화와 관련된 금정산의 금정암(金井岩) 전설은 하늘에서 오색 구름을 타고 금빛샘에 내려와 놀았다는 금빛 물고기는 바로 우주 만물의 창조신으로서 사바세계를 주재(主宰)하고 불교의 보호신으로서 불교도의 존숭을 받고 있는 범천왕(梵天王=Brahmadeva)이 사는 세계에서 내려온 물고기인 것이다. 이 물고기는 신성어족의 계열로 이 물고기가 내려와 논 장소는 성역(聖域) 중의 성소(聖所)다. 금정산역이 신라 시대로



부터 성역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런 설화를 평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 《後漢書》·《三國志》·《舊唐書》·《新唐書》·《隋書》·《北史》·《梁書》
- 《三國史記》·《三國遺事》·《新增東國輿地勝覽》·《東國歲時記》·《東萊府邑誌》·《嶺南鎮誌》
- 《機張縣邑誌》·《釜山鎮誌》
- 계명구락부, 《啓明》 제19호, 대동인쇄주식회사, 1927.
-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慶尙南道誌(상·중·하)》, 1964.
- 양산군, 《내고장 傳說》, 금창인쇄사, 1988.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가야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 1991.
- 在釜舊機張郡鄉人會, 《舊機張郡鄉土誌》, 성문당인쇄사, 1992.
- 조홍윤·김열규·김택규·성백인,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下)》, 소화, 1996.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북천분관, 《부산의 역사와 북천동고분군》, 1996.
- 부산대학교박물관, 《선사와 고대의 문화》, 1996.
- 정중환, 《가라사연구》, 해안, 2000.
- 기장군지편찬위원회, 《機張郡誌(상·하)》, 2001.
- 부산박물관, 《부산의 역사와 문화》, 2002.
- 부산박물관, 《동삼동패총전시관 전시도록》, 2002.